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린가드·조현우·김영권, 아시아 챔피언을 노린다! 쿠팡플레이, 2025-26 AFC 챔피언스리그 독점 생중계

2025. 9. 11.

쿠팡플레이가 2025-26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독점 생중계한다.

- **9월 15일(월)부터 내년 5월 2일(토)까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 **K리그 대표 4팀 출격 김영권·조현우·린가드·김진수 등 스타 플레이어 총집결!**
- **김환 해설위원, "동아시아 축구, 강약 없는 '평준화' 시대 진입 K리그 팀들, 챔피언스리그에서 매 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

2025. 09. 11 - 쿠팡플레이가 오는 9월 15일(월) 개막하는 2025-26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독점 생중계한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매년 아시아 각국 최상위 리그의 클럽들이 한 데 모여 최강팀을 가리는 지역 내 최고 권위의 클럽 축구 대항전으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챔피언스리그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챔피언스 엘리트 기준 우승 상금은 무려 1,000만 달러(약 138억 원) 규모이며, 우승팀은 '아시아 챔피언'이라는 명예와 함께 대륙 챔피언 자격으로 FIFA 클럽 월드컵에 진출한다.

한국에서는 총 4개의 클럽이 K리그1의 위상을 걸고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와 베테랑 센터백 '김영권'이 소속한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 슈퍼스타 '제시 린가드', 국가대표 출신 풀백 '김진수'와 함께 5년 만에 아시아 무대로 돌아온 수도 구단 'FC서울', 중원의 믿을맨 '이유현'과 함께 사상 첫 진출하는 돌풍의 팀 '강원FC'가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참가한다. 이어 원조 스피드 스타 '김인성'과 함께 코리아컵을 우승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 전통의 명가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에 출전해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시험한다.

K리그 팀들의 아시아 무대 여정이 개막 첫 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네 팀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동시에 출발선을 끊으며 시즌의 첫 경기에 나선다. FC서울은 16일(화) 오후 7시, 일본 마치다 젤비아의 홈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며 시즌의 문을 연다. 같은 시각, 강원FC는 중국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홈에서 첫 승 도전에 나선다. 다음 날인 17일(수) 오후 7시에는 울산HD가 중국 청두 룽청과의 맞대결을 통해 시즌 첫 발을 내딛는다. 이어 18일(목) 오후 9시 15분, 포항스틸러스는 태국 빠툼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며 여정을 시작한다.

2025-26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중계 일정표

2025-26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중계 일정표

중계는 국내 최고 축구 전문가들이 책임진다. 한준희, 김환, 황덕연 해설위원과 소준일, 윤장현, 김용남 캐스터가 참여해, K리그 팀들의 활약은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전체의 흐름까지 정확하고 날카롭게 전달한다.

김환 해설위원은 "지난 시즌부터 동아시아는 **확실한 강팀도 약팀도 없는 '평준화' 시대에 들어섰고,** 한 번의 방심이 곧 순위권 밖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강했던 K리그 팀들도 이제는 **매 경기가 결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청두 룽청의 서정원 감독, 마치다 젤비아의 나상호·오세훈,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김주성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K리그 출신 인물과의 '인연 찾기'가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서아시아권 클럽 팀들의 경기에서는 테오 에르난데스, 칼리두 쿨리발리, 은골로 캉테, 카림 벤제마 등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던 스쿼드를 아시아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는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스포츠 패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